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6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4.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하신 주님,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의 흐름을 끊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우리들에게 새벽빛보다 더 청신한 하늘의 빛을 비취 주십시오. 분주함을 핑계로 돌아보지 않던 우리 마음은 목정밭으로 변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본디 마음을 잃고 세상일에 동분서주하다 보니 우리 마음은 늘 들떠 있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속에 참된 평화를 창조해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풍요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인류 공멸(共滅)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인류의 자각이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편리함과 풍요로움은 생명의 적일 수도 있음을 자각하고, 불편하더라도 생명을 택할 줄 아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벧전5:6-7	인도자
----------------	---------------	-----

♠ 교 독 문	11. 시편28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	-----

대표기도	I. 황경순 집사 II. 장영숙 전도사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송	329. 형제여 지체 말라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눅5:27-32	인도자
------------	-------------------	-----

II. 막4:30-34	안홍숙 집사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소망으로 일어서라	김재흥 목사
-----------	--------------------	--------

II. 겨자풀처럼	김기석 목사
-----------------	--------

거듭기도	다함께
------------	-----

- 현신의 찬송 507.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함께
- 헌금봉헌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지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모든 이들의 가슴에 기쁨과 평화의 씨를 뿌리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투덜거림과 원망과 불신을 버리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가꾸겠습니다. 삶의 모든 과정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 임원 환영 친목회	성서의 평화(19)/김기석 목사
주관 : 4남선교회	기도 : 정옥영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김용길 권사

2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김용진	박홍재	백혜숙	권미정
	헌금위원	조병무	김용길	김훈동	배삼순	박효선	백혜숙

기쁨, 신자들의 보물

어쨌든 동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구 때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들어 때리는 사람에게 말할 것이다. “나를 때려눕히기 전에는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할 거요.” 그런 도전에 나를 밀어붙이는 것이 내 천성이다.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소진시키는 행동으로 돌입하기 위해 평범함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나 살다보면 평범함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순간들이 온다. 부부 사이에도 어떤 땐 한쪽이, 또 어떤 땐 다른 한쪽이 가방을 싸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평범함이란 가방을 싸는 일이다. 소설가에게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들, 그렇지만 간단히 말해서 ‘의무’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황들은 많다. 여기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선택에 동의하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순간들에서도 일종의 은총이 엿보인다. 우리의 인품을 표현하는 조각가의 끌질에 어떤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피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자국을 남길 것이다.

만남도 우리에게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만남에 의해서 존재한다. 나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어머니의 미소와 어루만짐이 있었기에 존재했고, 그 이후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만남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남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런 희망은 신자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존재한다고 나는 확언할 수 있다.

신자들의 보물을 나는 기쁨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자신의 자유를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기쁨 말이다. 이스라엘에나 이슬람에나 신은 하나이고, 그 신은 드러나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신은 사랑이다. 복음서는 이 비밀에 대해 조금 알려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한1서4:8)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신다. 그분은 아버지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숨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솟아나온다. 이 사랑은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유사성

들 중 하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그 사랑은 인간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믿는 자가 기쁨을 무한히 충만하게 겪게 되면, 그 기쁨은 전염된다. 믿는 사람들에 의해 믿지 않는 사람들(너무나 부조리한 표현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한 채 단지 믿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이라 불리는 이들은 아주 놀라운 희망의 증인들이다. 그들이 희망에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특권을 갖고 찾고 있는 희망이나 나의 희망이나 내게는 똑같다. 질병이나 죽음도 희망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한다. 매일 아침 맞이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희망이란 존재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불리지만 내 형제인 당신, 그리고 더 이상 믿는 자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나는 잘 못 믿는 자'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나, 그런 당신과 나를 아침마다 일어나게 만드는 바로 희망이다.

물론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희망이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잘 모른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희망이란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희망이란 권리의 원천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회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완수할 수 있게 해줄 수단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정의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을.

희망의 가장 멋진 원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 역시 그들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무한 속의 폭발과도 같이 엄청나게.

(이 글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 신부의 글인 <<피에르 신부의 유언>> 중에서 옮겨왔습니다. 이 책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무리될 내 삶의 기억>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진흙 눈동자

-나희덕

몇 걸음도 안 되는 거리에서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신다
아버지, 부르면
그제야 너 왔냐, 웃으신다

갑자기 식어버린,
열려 있지만 더 이상 피가 돌지 않는
저 눈동자 속에
어느 손이 진흙을 메워버렸나

괜찮다, 한 눈은 아직 성하니
세상을 반쯤만 보고 살라는 모양이다
조금씩 흙에 가까워지는 게지,
아버지는 창 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신다

고요한 진흙 눈동자,
그 속에 앞산의 나무 몇 그루 들어와 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준우 우순덕 김재흥 최희영 권미숙 이에정 한진실 오자영 김근종
 정옥영 김중수 이순정 김용길 최영혜 김윤수 박옥경 백묘현 서원금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임원민 임수연 한선희 임창선 조항신 김창원
 정지은 양재성 임고운 임진희

월정헌금:

권미숙 김명순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박범희 박미영 박석희 송동준
 김진경 전영웅 김순복 정두리 조병주 배제선 정미경 백숙현 정진경
 윤성종 김윤정

감사헌금:

박창운 허정윤 권미숙 신윤정 하진솔 노미향 임원민 최미선 오진훈
 노순옥 백혜숙 이인섭 김성중 김지혜 무명4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김준우 우순덕 김철수 김순복 오현정 장혜숙 이봉옥
 (누계- 29,10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차혜심	차혜심	정두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교회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문인옥	서원금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선	곽혜자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안정숙	안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김희우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최희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구명자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송양진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방극숙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명** : 오늘 예배 중에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임명합니다. 맡은 바 소명을 성심껏 감당하십시오.
2. **교사 수련회** : 오늘 오후 1시에 일영으로 전 교사 수련회를 떠납니다.
3. **환영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새로운 임원을 환영하는 웃놀이 모임이 있습니다.
4. **E.Y.C 총회** : 오늘 저녁 6시부터 우리 교회에 1층 예배실에서 총회로 모입니다.
5. **설날** : 아침 가족 기도회를 위한 순서지를 마련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6. **신앙실천** : 고마운 인연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편지를 쓰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동지들에게 하십시오.

* 식당 봉사 : 고린도 속 * 캄보디아 우물 기부 : 조해린 (생일)

< 새교우 소개 > 2708 김순자 소속: 3여성교회

2007년 교회학교 교사

교육부장: 방문성 / 교회학교장: 김인걸 / 청년부장: 조항범

유아부장: 한선희 교사: 최희영, 김수진, 이수정, 권현숙, 김진경

유치부장: 권미정 교사: 권 순, 임보람

아동부장: 광권희 교사: 이명희, 김태환, 김지은, 윤 윤, 하진솔

중고등부장: 황경순 교사: 유경순, 장성호, 김민주, 박정숙

찬양대원

찬양대장:한상익 / 지 휘 자:윤주원 / 반 주 자:최윤선.최미선

소프라노:구명자.송양진.정영선.한선희.김명희.오현정.정현주.임수연.김수연.

정미경.황선희.신윤정

앨 토:최윤희.정옥영.윤수진.김재영.권미숙

테 너:한상익.김근중.안길상.장재영.임원민.이광섭

베 이 스:조항범.안종일.이한림.최명동.박운양.김창원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